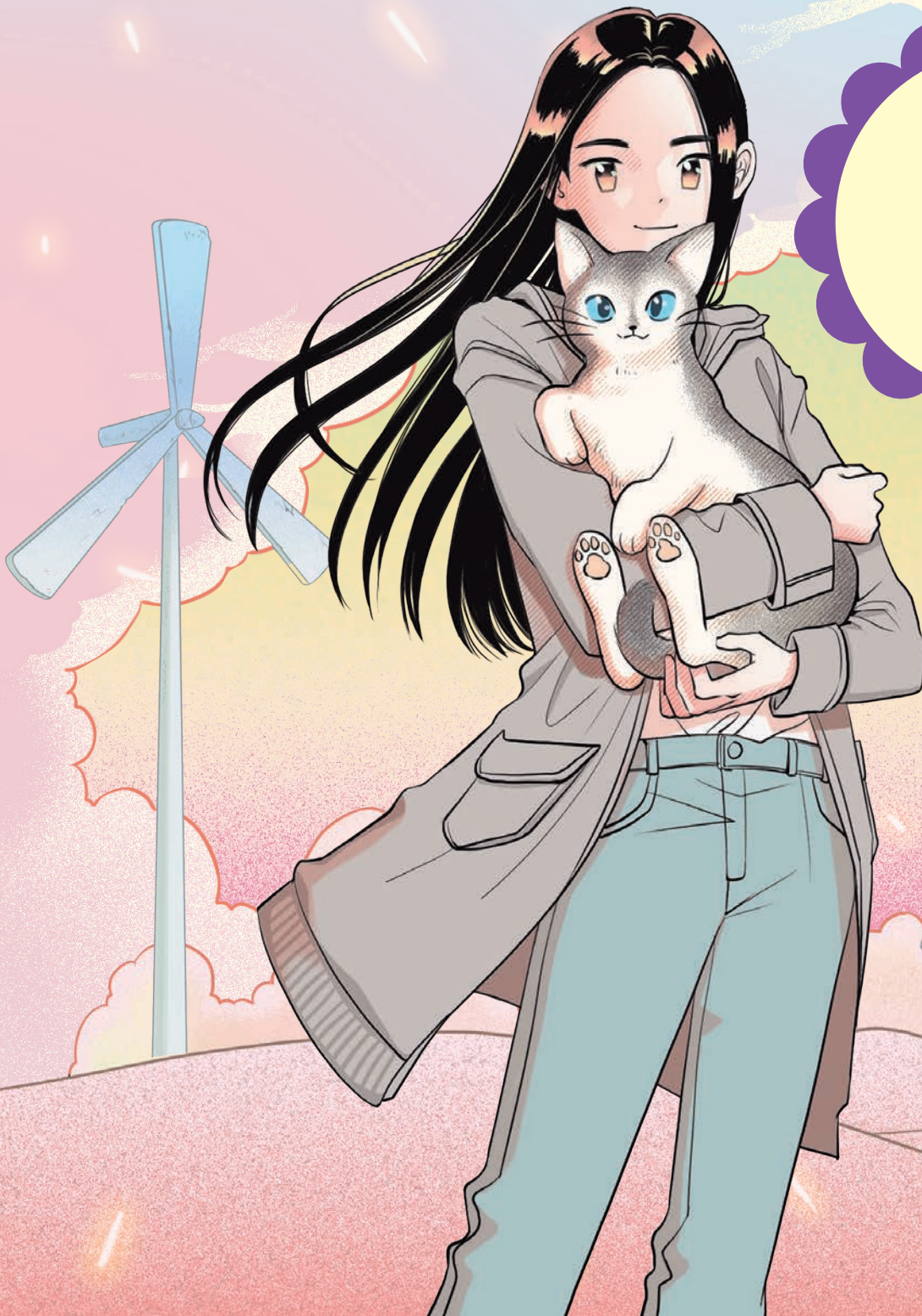


동물이 사라진 세계

# 시간 고양이

박미연 글 • 박남 그림

독후  
활동  
노트





## 차 례

1 동물이 사라진 세계

2 뉴클린시티를 향하여!

3 등장인물에 대하여



4 가짜 숲이라니?!

5 미래에는 무조건 다 좋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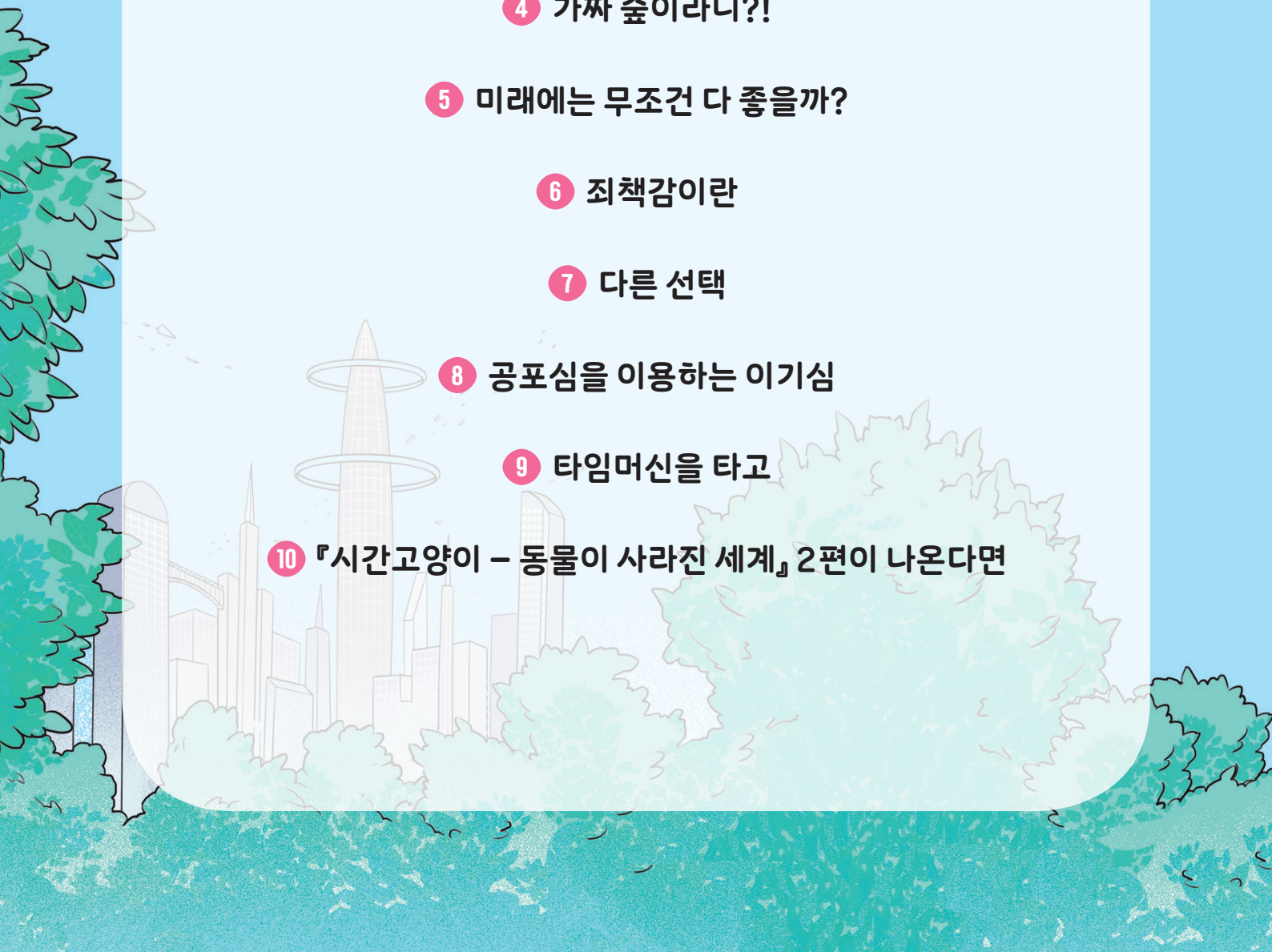
6 죄책감이란

7 다른 선택

8 공포심을 이용하는 이기심

9 타임머신을 타고

10 『시간고양이 - 동물이 사라진 세계』 2편이 나온다면



# 1. 동물이 사라진 세계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펭귄이 죽어가고 있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에 목숨을 잃는가 하면 얼음이 줄어들어 멸종위기를 겪고 있다. (...생략...)

마젤란펭귄의 사망 원인을 두고 환경오염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에두카마르는 “바닷물 오염 때문에 펭귄들이 죽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펭귄들이 살아서 해변에 도착하더라도 구조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브라질 대서양 해변에선 환경오염으로 죽은 마젤란펭귄이 종종 발견된다. 지난해 9월 브라질 해변에서 발견된 죽은 마젤란펭귄의 몸속에선 마스크가 발견됐다.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사용이 늘면서 누군가 해변에 버린 마스크를 굵주린 펭귄이 삼킨 것으로 추정됐다. 죽은 마젤란펭귄 위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출처] 국민일보 인터넷 기사 2021-08-11(<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04406&code=11141100&cp=nv>)



위의 기사처럼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 동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

---

---



이 책에서 인간을 제외한 동물들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

---

---

---



## 2. 뉴클린시티를 향하여!

물건을 내다 팔려고 불법 중고 거래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수상한 팝업 광고가 눈에 띄었다. 호기심에 눌러 본 나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살아 있는 동물 구함. 크면 클수록 좋음.  
1,000,000,000크레!

동물이 멸종한 시대에 살아 있는 동물을 구한다니? 어이가 없었다. 누가 클릭 수를 올리려고 장난을 친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며 창을 닫아 버렸었다. 그런데 정말 살아 있는 동물이 지금 내 손에 있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10억 크레를 벌기 위해서라도 이 고양이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 (28-29페이지)



서림이는 왜 10억 크레가 필요했고 뉴클린시티에 가고 싶어 했나요?

---

---

---

---



뉴클린시티에 가고 싶어 하는 서림이는 위험을 무릅쓰고 은실이를 몰래 보호합니다. 내가 서림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

---

---

---



### 3. 등장인물에 대하여

엄마, 아빠는 바이러스 이후 세상에서 없어진 것들 중에서 가장 그리운 것으로 내 이름을 지었다고 했다. 책과 푸른 숲. 어릴 때는 ‘서림이’라는 고리타분한 한자 이름이 싫었지만, 자랄수록 엄마의 얘기 속에만 존재하는 푸른 숲이 보고 싶었다.

“응, 수풀 림(林). 나도 좋아하는 글자라 거기서 따왔어.” (80페이지)



여러분의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나요? 사라지면 그리워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용해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보세요.

○이름:

○뜻: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특징, 성격 등을 적어보세요.

| 인물                                                                                         | 특징 | 성격 |
|--------------------------------------------------------------------------------------------|----|----|
| <br>이서림 |    |    |



은실이



엄호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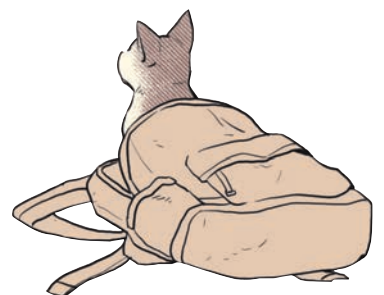
전설의 레드홍



김씨아저씨



보라색 원피스 여자



## 4. 가짜 숲이라니!?

그림책에서만 보던 바로 그 숲이었다. 평생 메마른 회색의 황무지만 봐 왔던 나는 생전 처음 보는 그 아름다운 숲에 낯이라도 뻗긴 듯 꼼짝할 수가 없었다.

“그거 가짜 숲이야.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가짜 나무들이지.”

해킹 장치로 트럭을 조종하던 아저씨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121페이지)



서림이처럼 숲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미래가 상상이 가나요? 이러한 미래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때문이라면, 우리 생활에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적어보세요.

1

2

3

4

5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의 원인들을 알아봤다면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실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적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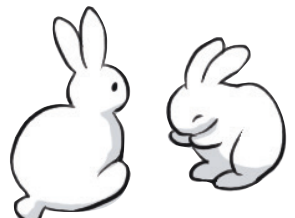
1

2

3

4

5



## 5. 미래에는 무조건 다 좋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먹어 온 고기는 인공 배양육이었습니다. 세포만 증식해 실험실에서 만든 것이죠. 당연히 진짜 고기와는 맛이나 식감이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연구소에서는 획기적인 기술로 제1호 슈퍼 복제 돼지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전자 가위를 통해 초고속 성장도 가능하죠. 이제 몇 달 안에 여러분은 진짜 고기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만만하게 설명하는 부소장의 뒤로 빠르게 성장하는 슈퍼 복제 돼지의 영상이 비춰졌다. 비정상적으로 급격하게 살이 찐 돼지의 눈이 고통스러워 보였다. (128페이지)



뉴클린시티 고기의 맛이나 식감은 어떻게 다를지 상상해보세요. 지금보다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도 적어보세요.

---

---

---

그러자마자 생체 인식칩을 심어 둔 왼쪽 팔이 따끔한 느낌이 들었다. (124페이지)

인공 지능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매표사, 홍채 인식이라니. 바깥에 있는 아저씨가 감시 카메라는 막아 주겠지 만, 문을 열어 줄 수는 없었다. (...생략...) 홍채 복제기라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호세는 아저씨가 위치 추적기와 함께 연구소에서 필요할지 모른다면 이런저런 기계들을 주었다고 했다. (131페이지)



뉴클린시티의 미래과학 기술들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 새로운 기술들을 만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상상해서 적어보세요.

---

---

---



## 6. 죄책감이란

“……정말 말도 마. 오늘따라 어찌나 히스테리를 부리는지. 어제도 잠을 통 못 잤다나 봐. 부소장 불면증이 엄청 심하잖아. 매일 밤 끔찍한 악몽에 시달린다고 하더라고. 악몽을 없애 보려고 안 해 본 게 없다던데…….”  
풍차 아래에서 오싹하게 웃던 부소장이, 사람을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여자가 불면증이라니 다소 의외였다.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지상 낙원에 사는데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뭘까? 뉴클린시티에 산다고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다. (137페이지)



부소장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유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어떠한 것들이었나요?

---

---

---

---

---



여러분도 최근에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다면 무엇 때문이었는지 적어보세요.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도 적어보세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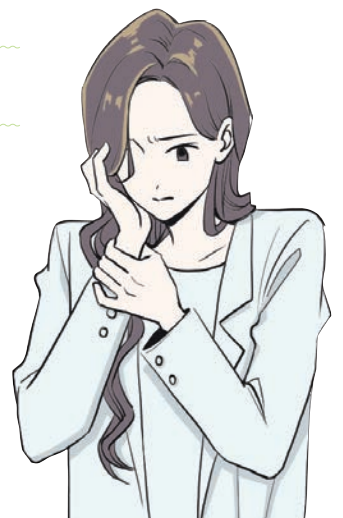
---

---

---

---

---



## 7. 다른 선택

“뭐 해? 빨리 일어나!”

다급한 목소리에 눈을 떴다. 최래아 부소장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은실이 가한 케이지가 들려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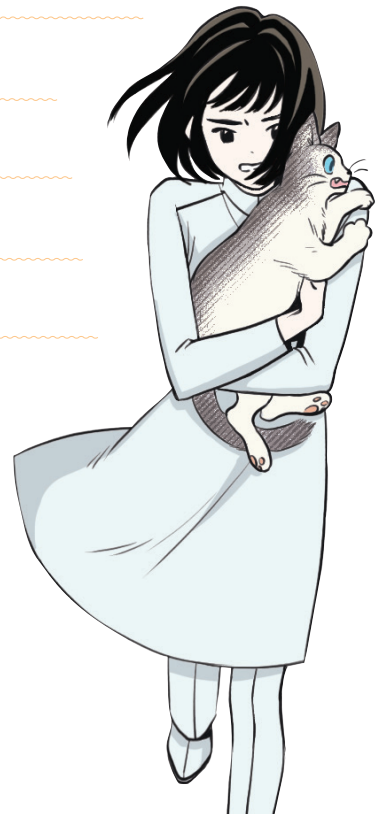
“빨리 나가. 내 마음 변하기 전에.”

최래아 부소장은 은실을 내밀며 딱딱하게 말했다.

“당신이…… 왜? 엄마 때문인가요?” (164페이지)



소장인 아빠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과거와 다른 선택을 한 부소장 최래아. 자신의 성공 대신 다른 선택을 했는데요. 내가 최래아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이유와 함께 적어보세요.



## 8. 공포심을 이용하는 이기심

“아빠도 한때는 알아주는 유망한 과학자였어. 그리고 동물 백신을 개발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아. 다만 그들이 하지 않을 뿐이지.”

“도대체 왜요?” (187페이지)



뉴클린시티에서 동물 백신을 개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

---

---

---

---

---



사람들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

---

---

---

---

---

---



## 9. 타임머신을 타고



서림이가 타임머신을 타고 다녀온 후 어떤 것들이 바뀌었나요?

---

---

---

---

---

---



서림이처럼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바꾸고 싶은 과거가 있나요?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그 이유도 같이 적어보세요.

---

---

---

---

---

---



## 10. 『시간고양이-동물이 사라진 세계』 2편이 나온다면

내가 놀란 눈으로 뵈히 쳐다보자, 남자애는 얼굴이 빨개졌다.

‘넌 정말 내 곁에 계속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자 허전했던 가슴이 따뜻하고 간질간질한 무언가로 채워지는 것 같았다. 반가웠지만 또 이상하게 부끄러웠다. 눈을 맞출 수가 없었다. 어색한 침묵이 감돌던 그때, 갑자기 은실이가 우리 사이로 펄쩍 뛰어들었다. 깜짝 놀란 남자애는 엉겁결에 은실이를 안았다. 그 모습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다. 마주 보고 웃던 남자애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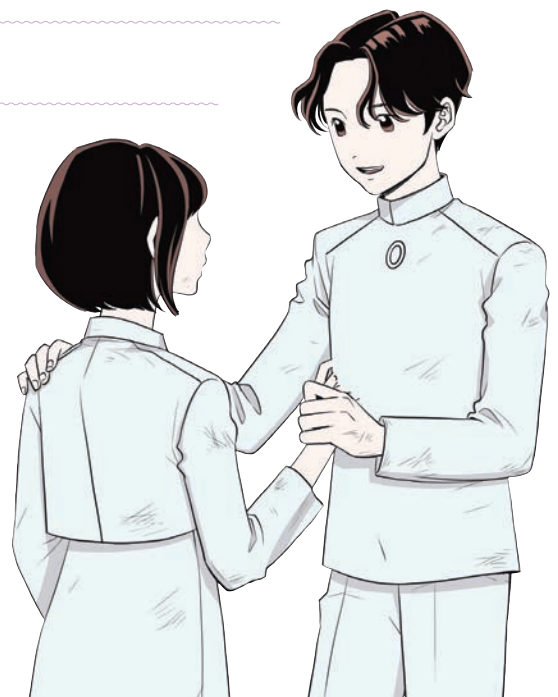
“안녕?”

햇살처럼 환하게 빛나는 웃음을 보자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에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도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안녕!” (228페이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온 서림이와 은실이는 이전과 바뀐 현재에서 평화를 되찾게 됩니다. 유일하게 바뀌기 전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서림이와 은실이가 2편에서는 새로운 모험을 떠날 것 같은데요. 이후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시간고양이』 2편의 줄거리를 상상해서 적어보세요.



## 꿈꾸는 십대를 위한 자음과모음 청소년문학



- 94 **출란의 계절** 김선희 지음
- 93 **홍가탐원대** 박현숙 지음
- 92 **마이너스 스쿨** 이진 외 지음
- 91 **조선 요괴 추적기** 신설 지음
- 90 **나의 수호신 크리커** 이승현 지음 **서울문화재단 문학창작집 발간 지원사업 선정작**
- 89 **디어 시스터** 김혜정 지음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88 **두메별, 꽃과 별의 이름을 가진 아이** 범유진 지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 선정도서·대한출판문화협회 청소년교양도서**
- 87 **쑈트** 박하령 지음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 선정도서**
- 86 **러닝 하이** 탁경은 지음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85 **괜찮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세라 해거홀트 지음
- 84 **소리를 삼킨 소년** 부연정 지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 선정도서**
- 83 **마구 놀러 세로고침** 이선주 외 지음
- 82 **보통의 노을** 이희영 지음
- 81 **조선가인살롱** 신현수 지음 **청소년출판협의회 추천도서**
- 80 **착한 아이 백천수 씨** 손서는 지음 **문학나눔 우수문학도서**
- 79 **카페, 공장** 이진 지음 **문학나눔 우수문학도서**
- 78 **왜 자꾸 나만 따라와** 최영희 외 지음 **대한출판문화협회 청소년 교양도서**
- 77 **식스팩** 이재문 지음 **제9회 자음과모음 청소년문학상**
- 76 **나의 스파링 파트너** 박하령 지음 **문학나눔 우수문학도서**
- 75 **시간을 파는 상점 2: 너를 위한 시간** 김선영 지음 **경남독서한마당 선정**
- 74 **소녀를 위한 페미니즘** 김진나 외 지음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73 **최초의 책** 이민항 지음 **제8회 자음과모음 청소년문학상**
- 72 **가면생활자** 조규미 지음 **서울문화재단 지원도서·책따세 추천도서**
- 71 **내 몸에 흐르는 뜨거운 피** 박상기 지음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70 **십대의 온도** 이상권 외 지음 **한국어린이교육문화연구원 으뜸책·청소년 북돋은 선정도서**
- 69 **아이스크림이 녹기 전에** 진저 지음
- 68 **발버둥치다** 박하령 지음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서울시 올해의 한 책 선정도서**
- 67 **서울 사는 외계인들** 이상권 지음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경남독서한마당 선정**
- 66 **이타적 유전자가 온다** 안덕훈 지음 **전국독서세물결모임 좋은 책 선정**
- 65 **베이비 박스** 박선희 지음 **서울문화재단 지원도서·문학나눔 우수문학도서**
- 64 **통일한국 제1고등학교** 전성희 지음 **전국독서세물결모임 독서토론 선정도서**
- 63 **헬로 바버리맨** 유영민 지음 **문학나눔 우수문학도서**
- 62 **소년, 황금버스를 타다** 손현주 지음 **문학나눔 우수문학도서**
- 61 **분홍 손가락** 김경해 지음
- 60 **발로 차 주고 싶은 등짝** 와타야 리사 지음 | 정유리 옮김
- 59 **별 볼 일 없는 녀석들** 양호문 지음 **문학나눔 우수문학도서·행복한아침독서 추천도서**
- 58 **저 입술이 낮익다** 박상률 지음
- 57 **따까리, 전학생, 꾸꾸바, 로댕, 신가리** 신설 지음 **제5회 자음과모음 청소년문학상**
- 56 **열흘간의 낮선 바람** 김선영 지음 **문학나눔 우수문학도서**
- 55 **금연학교** 박현숙 지음
- 54 **플라스틱 빔보** 신현수 지음 **문학나눔 우수문학도서**
- 53 **톡톡톡** 공지희 지음 **제4회 자음과모음 청소년문학상**
- 52 **하하의 씬싱** 전경남 지음
- 51 **시크릿 박스** 김혜정 지음 **행복한아침독서 추천도서**
- 50 **친구님** 이상권 지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청소년 권장도서**
- 49 **해리 미용실의 네버엔딩 스토리** 박현숙 지음 **문학나눔 우수문학도서**
- 48 **마음오류꽃** 정도상 지음 **문학나눔 우수문학도서**
- 47 **좀 비뚤어지다** 진저 지음 **제3회 자음과모음 청소년문학상 '주목할 시선상'**
- 46 **사막으로 난 길** 험길언 지음 **문학나눔 우수문학도서**
- 45 **말랑말랑 소울 스커마** 박은웅 지음 **문학나눔 우수문학도서**
- 44 **미치도록 가렵다** 김선영 지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추천도서·안산의 책 선정**
- 42 **잘 먹고 있나?** 김혜정 지음 **행복한아침독서 추천도서**
- 40 **오즈의 의류수거함** 유영민 지음 **제3회 자음과모음 청소년문학상**
- 36 **태양의 인사** 김경해 지음
- 35 **징을 두드리는 동안** 박재희 지음
- 32 **서른아홉 아빠에인 열다섯 아빠** 이근미 지음 **문학나눔 우수문학도서**
- 31 **내 친구 기리시마 동아리 그만두대** 아사이 료 지음 | 이수미 옮김
- 30 **달려라 돌공** 홍종의 지음 **문학나눔 우수문학도서**
- 29 **고양이가 기른 다람쥐** 이상권 지음 **중·고등학교 교과서 수록**
- 27 **특별한 배달** 김선영 지음 **행복한아침독서 추천도서**
- 25 **Mr. 박을 찾아주세요** 박현숙 지음 **문학나눔 우수문학도서·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24 **고수** 김수경 지음 **문학나눔 우수문학도서**
- 21 **제2우주** 선자은 지음
- 19 **고물섬** 이은 지음 **한국아동문학인협회·어린이책예술센터 우수추천도서**
- 18 **악마의 비타민** 양호문 지음
- 17 **그놈** 박선희 지음
- 16 **사랑니** 이상권 지음
- 15 **시간을 파는 상점** 김선영 지음 **제1회 자음과모음 청소년문학상**
- 12 **다이어트 학교** 김혜정 지음 **행복한아침독서·책따세 추천도서**
- 11 **불량청춘 목록** 박상률 지음
- 10 **정의의 이름으로** 양호문 지음 **학교도서관저널·행복한아침독서 추천도서**
- 09 **하프라인** 김경해 지음
- 08 **하늘을 달린다** 이상권 지음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 06 **오늘의 할 일 작업실** 김혜진 지음 **서울도서관 올해의 한 책 선정도서**
- 03 **비너스에게** 권하은 지음 **한국도서관협회 우수문학도서**
- 01 **성인식** 이상권 지음